



www.akht.or.kr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The Academy of Korea Hospitality & Tourism



개선된 여행비용차이추정법을 이용한 단양온달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

Estima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the Danyang Ondal Culture Festival using an improved travel cost method

최상수*

Choi, Sang-Su

* 세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부교수, tourdoc@hanmail.net, 관심분야: 관광개발, 마케팅

요약

이 연구는 단양온달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방법은 개선된 여행비용차이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분석은 제23회 단양온달문화축제 방문객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축제 방문객의 지출 비용을 토대로 축제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단양 온달 문화축제의 총 가치는 약 8,761,122,975원으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 단양온달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행비용 항목은 교통비, 숙박비, 기타 비용, 유흥·오락비, 식·음료비, 쇼핑비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비율이 높아 교통비(98%) 항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식·음료비와 쇼핑비로 인한 방문객인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숙박비나 유흥·오락비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축제를 기획하는 주최측은 숙박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연계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특산물물을 이용한 다양한 쇼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된 여행비용차이추정법을 이용하여 각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면 다소간 축제의 성격에 차이가 있더라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축제간의 비교가 가능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단양온달문화축제,
여행비용추정법,
개선된 여행비용차이추정법,
경제적 가치

ABSTRACT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the Danyang Ondal Culture Festival.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festival, the improved travel cost method was used. The total value were evaluated to be approximately 8,761,122,975 Korean won. The result showed that travel cost items were affect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festival in the order of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other expenses, amusement and entrance fee, food and beverage, and shopping. The effect of transportation was estimated to be high, considering the high percentage of tourists, whereas visitors' surplus caused by shopping, food and beverage was small. Because accommodation, amusement and entrance fee directly affect the regional economy, it is necessary for festival planning party to develop significant and meaningful to tour programs for increase in overnight trips. Finall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festivals through the more objective, clear comparison and measurement of economic value between local festivals using improved travel cost estimation method.

KEYWORDS

Danyang Ondal Culture
Festival,
travel cost method,
improved travel cost method,
economic value

ACCEPTANCE INFO.

2021.02.09. 원고 접수
2021.02.22. 1차 수정본 접수
2021.02.24. 2차 수정본 접수
2021.02.26. 최종 수정본 접수
2021.02.26. 최종 게재 확정
3인 익명심사필

ACKNOWLEDGEMENTS

이 연구는 2018년도 세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SMU-EX-2018-05-005).

I. 서론

지역축제 간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과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요인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지역축제에 대한 진정한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를 측정할 수 있다면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투입의 실효성을 더욱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도한 예산투입으로 인한 낭비의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마케팅 등 본래 축제목적의 달성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Melville & Riaan(2011)은 남아프리카 국가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축제는 이익생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충분한 공헌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최근 지역축제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이 과다하게 부풀려 계산되는 일이 많아 지역축제의 순가치를 스스로 폄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박미옥 등, 2010). 이런 과도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과거부터 사용되어온 여행비용추정법(travel cost method: TCM)은 합리적 여행자의 비(非)시장 환경재인 방문지 기대 편익이 적어도 자신의 여행비용을 초과해야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이루어져서 여행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서 방문객이 전혀 없다면, 그때 여행상품의 품질개선과 저하에 따른 한계 사회적 편익도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수요함수추정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그러나 개선된 여행비용차이추정법(improved travel cost method: ITCM)은 '총방문객 수, 여행비용 지출항목 조사, 최대지출비용, 평균방문객잉여, 가중평균방문객잉여, 총방문객잉여, 관광자원의 가치, 관광자원의 개선된 가치'를 구한다. 이로 인해 6개 지출항목을 중심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구체적 품질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이충기·송학준, 2008; 주수현 등, 2010; 한상현·조광익, 2006).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추정을 통하여 더욱 체계적인 축제를 기획·추진할 수 있는 동기의 제공 및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여 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또한, 지역축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및 방문객 잉여가 높은 소득계층을 식별하여 실질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제23회 온달문화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에 이용되는 공통 여행비용과 관련한 소비지출 6개 항목을 조사하고 ITCM을 이용하여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행비용추정법

TCM은 환경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최소 비용으로 입장하는 공공 레크레이션 장소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됐다(Rumi, 1999; Walsh et al., 1984). TCM은 레크레이션 자원의 비(非)시장 편익에 대한 효과적인 가치평가방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Carson & Mitchell, 1993; Hanley & Spash, 1993). 이러한 TCM은 합리적 여행자의 비(非)시장 환경재인 방문지 기대 편익이 적어도 자신의 여행비용을 초과해야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Clawson(1959)과 Clawson & Knetsch(1966) 등에 의해 이론화되었다(이경진·송명규, 2013; Leon, 1996). 예컨대, 만일 어떤 축제방문을 위한 여행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서 방문객이 전혀 없다면, 그때 축제의 품질개선과 저하에 따른 한계 사회적 편익도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된다. TCM은 대체지 방문 비용이 고려될 경우, 특정 장소 방문을 위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를 결정하는데 적용되어왔다. Hanley et al.(1993)은 특정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각각의 개인이 주어진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데 지불해야 할 총비용의 함수로 제시하여 해당 자원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국내연구로는 유영희 등(2004)은 대호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한 가치평가는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출한 비용, 즉 교통비, 입장료, 숙박비 등 여행비용으로부터 비(非)시장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TCM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창현·임유미(2009)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개인여행비용법과 지역여행비용법을 통한 관광자원의 가치를 추정하였고, 박미옥 등(2010)은 광안리 해수욕장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에서 1회 방문에 따른 소비자잉여를 244,441원에서 235,370원으로 추정하였다. 전철현 등(2010)은 여행수요곡선의 일반적인 형태인 역수요곡선을 활용한 강원도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추정하였으며, 이경진·송명규(2013)는 한국의 대표 생태축제 중의 하나인 함평나비축제를 사례로 TCM을 이용하여 이 축제의 사회적 가치를

76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윤여창 등(2015)은 산림자원의 휴양가치 산출을 위한 경제적 평가방법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윤 등(2015)은 여행비용법을 이용하여 안양천의 방문편익을 추정한 결과 1인 1회 방문편익은 약 3만 1천원으로 나타났고, 연간 방문편익은 약 7만 2천원으로 추정되어 2013년 기준으로 안양천의 총 방문편익은 연간 약 95억원으로 추산하였다. 표희동(2017)은 여행비용법에 따른 동해 해수욕장 및 연안습지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그룹당 1인당 1회 여행당 소비자잉여는 각각 214,088원, 1인당 1일 체류기간 소비자잉여는 각각 91,183원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본 논문에서 제시한 ITCM은 TCM의 단점인 수요함수추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과정을 수행한다. ‘총방문객 수, 여행비용 지출항목 조사, 최대지출비용, 평균방문객잉여, 가중평균방문객잉여, 총방문객잉여, 관광자원의 가치, 관광자원의 개선된 가치’를 구한다. 여기서, 여행비용 지출항목별 응답률의 범위는 $0 \leq \text{여행비용 지출항목별 응답률} \leq 1$ 이다. 여행비용 지출항목별 ‘응답률=0’일 경우에는 해당 관광자원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의미이고, 여행비용 지출항목별 ‘응답률=1’일 경우에는 모집단의 모든 방문객이 해당 관광자원에 대해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단점은 정확한 총방문객 수를 입력하지 못하면 추정치의 오류를 범한다(심규원 등, 2013; 유진채 · 정대현, 2003; 정오현 등, 2009; 주수현 · 정성호, 2010; 표순희, 2012).

2. 비용변수 및 기타변수

비용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여행비용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통비 즉 왕복화폐비용이다(Bishop & Heberlein, 1979; Clawson, 1959; Hanemann, 1994; Lee, 1997). 교통수단, 여행비용, 여행방법이 다양하므로 거리와 여행비용이 정비례한다는 기본가정이 성립하기 어렵다(송운강 · 이혜진, 2004). 이로 인해 많은 학자는 1인당 교통비용을 여행비용변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송운강 · 이혜진(2004), 유영희 등(2004), 허윤정 · 이승래(2007), Cooper(2000) 등이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관광행태와 관련된 숙박비, 식 · 음료비, 유희 · 오락비, 쇼핑비, 기타 비용(이충기 등, 2008; 한상현 등, 2006) 등의 변수들이 포함되었고, 응답자들의 사회경제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직업, 학력, 현 거주지(김세혁 · 김태균, 2018; 문경일 · 임창호, 2003; 이희찬, 2002; Cooper, 2000) 등의 변수들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포함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설계

학자마다 가치(value)라는 개념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치는 기본적으로 개인 사용자나 소비자의 편익(benefit)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지역축제에서의 가치의 개념은 방문객이 축제 주최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직접 참여하거나 때로는 관광 소비를 통해서 각 개인이 얻는 편익이라 할 수 있다. 관광자원의 가치측정에 관한 방법은 크게 직접가치 측정법과 간접가치 측정법이 사용되고 있다. 직접가치 측정법에 있어서 Dwyer et al.(1977)은 관광객은 해당 관광자원의 가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그 자원의 가치는 해당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해당 관광자원에 대한 WTP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반면 간접가치 측정법은 해당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소비 행동을 대리변수(특히, 여행비용)를 사용하여 관찰함으로써 관광자원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목적인 지역축제의 가치측정을 위해서는 방문객에게 직접 WTP를 조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만 지역축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관광활동에 대한 WTP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 Pearse(1968)가 개발한 비용차이추정법에 표본의 여행비용지출에 관한 응답률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여 바로잡았다. 즉, 실제 여행비용차이(방문객잉여)를 계산하고 나서 총 방문객의 수를 곱하여 해당 관광자원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에서 나아가 실제 응답률을 고려하여 총방문객 수를 바로잡는 방법이다. ITCM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정 관광활동을 식별하고 표본을 선정하고 총방문객 수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문항 즉, 여행비용 지출항목(숙박비, 식 · 음료비, 교통비, 유희 · 오락비, 쇼핑비, 입장료 등)에 대해 구체적 지출비용을 직접 써넣게 한다. 각 문항에 대해 소득 구간별로 계층화하고 각 계층에서 최대지출비용(A)을 구한다. 다음으로 평균방문객잉여(B)를 구하는데 이는 각 계층의 최대지출비용에서 계층 내의 각 방문객이 지출한 비용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평균한다. 다음 절차로 계층별 가중치(C)를 구한 후에 각 계층의 평균소비자잉여와 가중치를 곱하여 가중평균방문객잉여(D)를 구하고 나서, 다음 계층별 가중방문객잉여를 더하여

총 방문객잉여(E)를 구한다. 그리고 총방문객 수(F)에 총 가중평균방문객잉여를 곱하여 해당 관광자원의 가치(G)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ITCM은 Pearse(1968)의 방법에 수요함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여행비용 지출항목별 응답률을 고려하여 해당 관광자원의 개선된 가치(H)를 구한다.

ITCM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B = \frac{\Sigma(A - P_s)}{I_n} \quad : \text{평균방문객잉여}$$

$$C_r = \frac{I_n}{I_t} \quad : \text{계층별 가중치}$$

$$D_r = B_r C_r \quad : \text{가중평균방문객잉여}$$

$$E = \sum_{r=1}^n (B_r C_r) \quad : \text{총 방문객잉여}$$

$$G = F_t E \quad : \text{관광자원의 가치}$$

$$H = F_t I_s E \quad : \text{관광자원의 개선된 가치}$$

F: 총방문객 수

I: 조사항목 응답률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방문객의 여행지출비용의 특성을 조사하여 단양온달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설문 문항은 인구통계적 기본특성과 월평균 수입,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예산을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 평가에서 사용되는 여행비용 관련 공통 질문 문항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10월 18일에서 10월 20일까지 충청북도 단양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23회 단양온달문화축제를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기응답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설문에 앞서 00대학교 학생들은 연구의 취지와 설문 방식, 설문 때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현장에 투입되었다. 표본의 선정은 단양온달문화축제를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관광객그룹의 대표자 1인에게만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여행비용모형의 특성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한상현 외, 2006). 총 300부의 설문지를 직접조사 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하였지만,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20매를 제외한 28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총방문객 수(42,219명)는 축제 기간에 축제 행사장을 방문한 인원으로서 단양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식에 대입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인 단양군은 총면적은 780.67km²로 경상북도 풍기읍, 예천군과 문경시, 강원도 영월군, 제천시와 경계하고 있고, 소백산과 남한강이 어우러진 자연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관광지로 단양군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집계 결과, 2017년부터 1천만 관광객 방문하는 지역이 되었다(투어코리아, 2019. 12. 9)이런 단양군에서 개최된 제23회 단양온달문화축제의 슬로건은 ‘고구려 매력에 빠지다!’이고 주 행사 장소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관광지 및 단양읍 일원이다. 온달문화축제는 4년 연속 충청북도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궁을 떠난 공주(연극),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댄스컬), 고구려 마상무예, 제천 오티 별신제(무형문화재 공연), 진격의 북소리(대북공연), 쌍사자춤과 사물놀이공연 및 시조창(무형문화재 공연) 등이 있다.

3. 분석자료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제23회 단양은달문화축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같이 남성 약 45.7%, 여성 54.3%의 응답률을 보였고, 연령대별로는 40대(40.7%), 30대(25.4%), 20대(19.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혼(75.7%), 직업은 회사원(37.9%), 주부(20.7%), 학생(11.1%), 자영업(10.0%)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대졸이 52.1%로 관측되었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N=280)

변수명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28	45.7
	여자	152	54.3
연령	20대	54	19.3
	30대	71	25.4
	40대	114	40.7
	50대	25	8.9
	60대 이상	15	5.4
결혼	기혼	212	75.7
	미혼	67	24.3
직업	전문직	12	4.3
	회사원	106	37.9
	생산기술직	4	1.4
	서비스직	7	2.5
	공무원/교직원	21	7.5
	자영업	28	10.0
	학생	31	11.1
	농수산업	3	1.1
	주부	58	20.7
	기타	10	3.6
학력	고졸 이하	39	13.9
	전문대졸	65	23.2
	대졸	146	52.1
	대학원 이상	30	10.7
현 거주지	충북 외	172	53.8
	충북(단양군 제외)	107	33.4
	단양군	41	12.8

2) 여행비용지출 항목 특성

〈표 3〉 여행비용지출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

변수명	평균 지출액(원)	빈도(명)	비율(%)
교통비	80,276	266	95.3
숙박비	110,190	265	95.0
식·음료비	95,824	269	96.4
유흥·오락비	33,086	261	93.5
쇼핑비	40,498	266	95.3
기타 비용	35,369	260	93.2

그리고 280개의 표본 중 여행비용지출 항목에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표 3〉에 정리하였으며 이 비율은 계산식에서 수요를 결정하는 가중치로 사용된다. 식·음료비(96.4%)를 지출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비(95.3%), 쇼핑비(95.3%), 숙박비(95.0%) 순으로 응답하였다.

IV. 비용추정 결과

1. 여행비용지출 추정

1) 교통비 추정

방문객이 지출한 교통비에 대해 방문객의 잉여를 계산하였다. 교통비는 방문객의 거주지로부터 축제장까지의 이동비용을 조사하였다. 280명의 표본에서 지역축제를 관람하면서 교통비의 지출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6명이었고, 소득계층 별로 가중평균 방문객잉여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교통비에 대한 가중평균방문객잉여가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200만 원 이하 구간이었으며,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301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구간이었다. 그리고 교통비에 의해 파급된 경제적 가치는 8,615,772,059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4〉 교통비 ITCM

월평균 수입	표본수(명)	최대지출비용(원)	평균방문객 잉여(원)	계층별 가중치(원)	가중평균방문객 잉여(원)
200만원 이하	42	800,000	495,238	.158	78,195
201-300만원	44	200,000	84,955	.165	14,053
301-400만원	71	500,000	6,944	.267	1,853
401-500만원	45	400,000	36,622	.169	6,195
501-600만원	30	500,000	114,500	.113	12,914
601-700만원	11	1,500,000	181,818	.041	7,519
701만원 이상	23	800,000	127,739	.086	11,045
합계	266			1.000	137,774

2) 숙박비 추정

방문객이 지출한 숙박비에 대해 방문객의 잉여를 계산하여 보자. 280명의 표본에서 지역축제를 관람하면서 숙박비의 지출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5명이었고 이는 내륙의 오지 단양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숙박여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소득계층 별로 가중평균 방문객잉여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숙박비에 대한 가중평균방문객잉여가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200만원 이하 구간이었으며,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401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구간이었다. 그리고 숙박비에 의해 파급된 경제적 가치는 39,517,378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5> 숙박비 ITCM

월평균 수입	표본수(명)	최대지출비용(원)	평균방문객 잉여(원)	계층별 가중치(원)	가중평균방문객 잉여(원)
200만원 이하	42	1,000,000	583,333	.158	92,453
201-300만원	44	500,000	254,091	.166	42,189
301-400만원	72	760,000	176,111	.272	47,849
401-500만원	44	600,000	248,409	.166	41,245
501-600만원	29	760,000	607,931	.109	66,528
601-700만원	11	600,000	1,377,273	.042	57,170
701만원 이상	23	1,000,000	1,023,913	.087	88,868
합계	265			1.000	436,302

3) 식·음료비 추정

방문객이 지출한 식·음료비에 대해 방문객의 잉여를 계산하여 보자. 280명의 표본에서 지역축제를 관람하면서 식·음료비의 지출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9명이었고, 소득계층 별로 가중평균 방문객잉여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식·음료비에 대한 가중평균방문객잉여가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200만원 이하 구간이었으며,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301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구간이었다. 그리고 식·음료비에 의해 파급된 경제적 가치는 26,961,757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6> 식·음료비 ITCM

월평균 수입	표본수(명)	최대지출비용(원)	평균방문객 잉여(원)	계층별 가중치(원)	가중평균방문객 잉여(원)
200만원 이하	42	500,000	211,310	.156	32,993
201-300만원	46	500,000	147,391	.171	25,204
301-400만원	73	500,000	12,740	.271	3,457
401-500만원	44	500,000	117,727	.164	19,257
501-600만원	30	300,000	115,667	.112	12,900
601-700만원	11	400,000	718,182	.041	29,368
701만원 이상	23	500,000	353,913	.086	30,260
합계	269			1.000	153,439

4) 유흥·오락비 추정

방문객이 지출한 유흥·오락비에 대해 방문객의 잉여를 계산하여 보자. 280명의 표본에서 지역축제를 관람하면서 교통비의 지출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1명이었고, 소득계층 별로 가중평균 방문객잉여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유흥·오락비에 대한 가중평균방문객잉여가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501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구간이었으며,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200만원 이하 구간이었다. 그리고 유흥·오락비에 의해 파급된 경제적 가치는 27,579,694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7〉 유흥·오락비 ITCM

월평균 수입	표본수(명)	최대지출비용(원)	평균방문객 잉여(원)	계층별 가중치(원)	가중평균방문객 잉여(원)
200만원 이하	42	100,000	26,524	.161	4,268
201-300만원	43	100,000	34,767	.165	5,728
301-400만원	69	500,000	103,145	.264	27,268
401-500만원	44	500,000	144,727	.169	24,398
501-600만원	29	500,000	298,966	.111	33,218
601-700만원	11	200,000	309,091	.042	13,027
701만원 이상	23	500,000	358,913	.088	31,628
합계	261			1.000	139,536

5) 쇼핑비 추정

방문객이 지출한 쇼핑비에 대해 방문객의 잉여를 계산하여 보자. 280명의 표본에서 지역축제를 관람하면서 교통비의 지출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6명이었고, 소득계층 별로 가중평균 방문객잉여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쇼핑비에 대한 가중평균방문객잉여가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200만원 이하 구간이었으며,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201만원 이상~300만 원 미만 구간이었다. 그리고 쇼핑비에 의해 파급된 경제적 가치는 19,015,883원으로 측정되었다.

〈표 8〉 쇼핑비 ITCM

월평균 수입	표본수(명)	최대지출비용(원)	평균방문객 잉여(원)	계층별 가중치(원)	가중평균방문객 잉여(원)
200만원 이하	42	500,000	199,643	.158	31,523
201-300만원	44	100,000	19,318	.165	3,195
301-400만원	72	300,000	36,667	.271	9,925
401-500만원	44	300,000	95,318	.165	15,767
501-600만원	30	400,000	222,833	.113	25,132
601-700만원	11	100,000	136,364	.041	5,639
701만원 이상	23	300,000	195,957	.086	16,944
합계	266			1.000	108,124

〈표 9〉 기타 비용 ITCM

월평균 수입	표본수(명)	최대지출비용(원)	평균방문객 잉여(원)	계층별 가중치(원)	가중평균방문객 잉여(원)
200만원 이하	42	100,000	50,286	.162	8,123
201-300만원	43	2,000,000	1,101,302	.165	182,138
301-400만원	70	400,000	108,843	.269	29,304
401-500만원	43	300,000	139,977	.165	23,150
501-600만원	28	500,000	404,714	.108	43,585
601-700만원	11	500,000	1,070,909	.042	45,308
701만원 이상	23	300,000	279,739	.088	24,746
합계	260			1.000	356,354

6) 기타 비용 추정

방문객이 지출한 기타 비용에 대해 방문객의 잉여를 계산하여 보자. 280명의 표본에서 지역축제를 관람하면서 교통비의 지출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0명이었고, 소득계층 별로 가중평균 방문객잉여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기타 비용에 대한 가중평균방문객잉여가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201만원 이상~300만 원 미만 구간이었으며,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200만원 이하 구간이었다. 그리고 기타 비용에 의해 파급된 경제적 가치는 32,276,202원으로 측정되었다.

2. 경제적 가치 추정

다음 <표 10>과 같이 지역축제인 단양온달문화축제의 총 가치는 약 8,761,122,975원으로 측정되었다. 축제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여행비용 항목은 교통비(8,615,772,059원)였으며, 다음으로 숙박비(39,517,379원), 기타 비용(32,276,202원), 유흥·오락비(27,579,694원), 식·음료비(26,961,758원), 쇼핑비(19,015,883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비가 축제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단양온달문화축제에 참여하는 방문객이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TCM에서는 여행비용의 대리변수로 거주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주로 인당 교통비를 이용했다(주수현 등, 2010). 이 교통비에는 지역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발생한 시간 소요에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숙박비로 인한 지역축제의 가치에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측정되어 당일 관광의 행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단양온달문화축제로 인한 숙박 관광의 행태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객잉여가 비교적 높은 소득계층은 2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분석되었다. 이 구간의 소득을 가진 방문객들은 지역축제의 상품에 대해 비교적 구매력을 높은 계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축제를 기획하는 주최측은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여행비용지출 항목별 방문객잉여

변수명	ITCM(원)	비율(%)	가치 영향 순위
교통비	8,615,772,059	98.34	1
숙박비	39,517,379	.45	2
식·음료비	26,961,758	.31	5
유흥·오락비	27,579,694	.31	4
쇼핑비	19,015,883	.22	6
기타 비용	32,276,202	.37	3
합계	8,761,122,975	100.00	

V. 결 론

본 연구는 제23회 단양온달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최근 정부는 무분별한 유사 축제의 난립을 지적하면서, 향후 지역축제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 축제의 축소폐지 정책에 대비하여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기존 유지되어온 축제의 축소 혹은 확대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이다. 이를 위해 지역축제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가치평가가 지역축제 자립화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양온달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Pearse(1968)가 개발한 비용차이추정법을 개선하여 수요의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ITCM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한 단양온달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는 약 8,761,122,975원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단양온달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여행비용 항목은 교통비(8,615,772,059원)였으며, 다음으로 숙박비(39,517,379원), 기타 비용(32,276,202원), 유흥·오락비(27,579,694원), 식·음료비(26,961,758원), 쇼핑비

(19,015,883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축제라는 관광상품에 대해 비교적 구매력이 높은 소득계층은 2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비가 축제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단양온달문화축제에 참여하는 방문객이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숙박비로 인한 경제적 가치에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측정되어 당일 관광의 행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유영희 등, 2004; 유진채 등, 2003; 주수현 등, 2010). 이는 단양온달문화축제로 인한 숙박 관광의 행태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통비는 지역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으나 숙박비나 쇼핑비 및 입장료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축제를 기획하는 주최측은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야간 문화예술 공연 확대, 가족단위 프로그램 도입 및 지역 내 연계 관광 등 숙박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유익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축제 방문객들은 축제를 통한 자녀교육 및 농·임산 특산물 구매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으므로 실질적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쇼핑상품 및 기념품 등의 개발, 지역 전통시장과의 연계프로그램의 도입, 자녀교육 목적의 체험행사의 도입과 입장료 수입을 위한 축제의 유료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여행비용의 지출항목에 대한 설문에서 문화관광축제에서 조사하는 기본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이 외에도 체험활동 및 경연대회 참가비 등 다양한 지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주수현 등, 2010). 그러나 그러한 비용 항목은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역축제의 가치측정에 관한 대표적 연구 방법으로 CVM과 TCM이 널리 이용됐으나 이들 방법은 여러 학자 간의 견해 차이와 축제의 특성에 따른 변수 정의의 불편성, 내생적 증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곽승준 등, 2002; 강정길·이승곤, 2011; 심규원, 2013).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ITCM을 이용하여 각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면 다소간 축제의 성격에 차이가 있더라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축제간의 직접적 비교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위에서 측정한 경제적 가치를 편익의 개념으로 확장한다면 비용편익분석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축제의 가치 추정을 위한 비교적 쉽고 정확하며 간단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지역축제의 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ITCM을 활용한 연구를 다른 지역축제에 적용하여 대규모 시계열자료를 만들어낸 후 이를 새로운 수식에 대입하여 관광자원으로서 가치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각한 지역축제 경제적 가치 추정을 공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정길·이승곤(2011). CVM기법을 적용한 국립공원 설악산의 관광자원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5(4), 51-73.
- 곽승준·조승국·유승훈(2002). 한려해상국립공원 보존의 경제적 가치: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하여. *경제학연구*, 50(2), 85-104.
- 김세혁·김태균(2018). 여행비용법을 이용한 평창 산지 축산 체험관광의 수요와 편익 추정: 단일 및 다목적지 여행비교. *관광연구*, 33(1), 125-142.
- 문경일·임창호(2003). 도시여가공간으로서의 고궁의 이용가치 평가. *국토계획*, 38(2), 191-201.
- 박미옥·소국섭·김재석(2010). 광안리 해수욕장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 *호텔관광연구*, 12(2), 17-27.
- 송운강·이혜진(2004). 경포 해수욕장의 가치평가: 가산 자료모형을 이용한 여행비용분석. *한국관광학회 제55차 학술논문 발표대회 논문집*, 10월, 304-331.
- 심규원·권현교·이숙향(2013). 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국립공원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20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7(4), 33-40.
- 유영희·임재환·구승모(2004). 여행비용접근법(TCM)에 의한 관광효과 추정.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31(2), 123-134.
- 유진채·정대현(2003).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평가법에 의한 백두대간의 비시장적 가치평가: 충청북도민 조사를 중심으로. *농촌관광연구*, 10(1), 101-118.
- 윤여창·김민경·박소희·박선영·석현덕·구자춘(2015). 지역기반 산림관리 실태 및 여건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1-98.
- 이경진·송명규(2013). 함평나비(대)축제의 사회적 가치: 여행비용접근법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22(4), 291-302.
- 이운·홍용석·정영근(2015). 안양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추정. *환경정책*, 23(4), 97-114.
- 이창현·임유미(2009).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 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0월, 84-90.
- 이충기·송학준(2008). 2010년 서울시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 직접조사에 의한 지역산업연관모델을 중심으로.

- 호텔관광연구, 10(2), 44-56.
- 이충기·정혜진(2020). 협의와 광의의 한류관광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호텔관광연구*, 22(1), 1-12.
- 이희찬(2002). 해오라기의 가치평가: 양분선택형 조건부 시장가치 평가법의 적용. *관광학연구*, 25(4), 127-142.
- 전철현·신효중·주혜진(2010).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근접효과(Proximity Effects)의 검증에 관한 연구: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중심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 19(1), 101-129.
- 정오현·김재석·한상현(2009).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한 자연관광자원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태종대에 대한 이중양분선택형 CVM 적용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3), 391-409.
- 주수현·이선영·김영표(2010). 단일양분형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한 을숙도 가치추정. *국제지역연구*, 14(2), 3-23.
- 주수현·정성호(2010). 이중양분선택형 CVM을 통한 부산 불꽃축제에 대한 편익 가치추정. *언론학연구*, 14(2), 185-204.
- 투어코리아(2019. 12. 9). 올해 단양 관광객 수 1천만명 돌파, 기록 갱신 기대감 쑥↑. Retrieved December 10, 2020, from <http://www.tour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11>
- 표순희(2012).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적용한 공공도서관 가치의 비교 연구: 지불수단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9(2), 173-191.
- 표희동(2017). 개별여행비용법(TCM)을 이용한 동해안 해수욕장의 경제적 가치추정. *Ocean and Polar Research*, 39(1), 51-59.
- 한상현·조광익(2006). 산악국립공원의 비시장가치추구에 관한 연구: 주왕산 국립공원에 대한 개인별 여행 비용모형의 적용. *관광연구*, 21(1), 113-129.
- 허윤정·이승래(2007). 가산자료모형을 이용한 송정 해수욕장의 경제적 가치추정: 비수기 해수욕장의 가치추정. *수산경영론집*, 38(2), 79-101.
- Bishop, R. C., & Heberlein, T. A.(1979). Measuring values of extramarket goods: are indirect measures biased?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1(5), 926-930.
- Carson, R. T., & Mitchell, R. C.(1993). The value of clean water: the public's willingness to pay for boatable, fishable, and swimmable quality water. *Water Resources Research*, 29(July), 2445-2454.
- Clawson, M.(1959). *Methods of Measuring Demand for and Value of Outdoor Recreation*, Washington, DC: Resource of the Future Inc.
- Clawson, M., & Knetsch, J. L.(1966). *Economics Of Outdoor Recre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ooper, J. C.(2000). Nonparametric and semi-nonparametric recreational demand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2(2), 451-462.
- Dwyer, J. F., Kelly, J. R., & Bowes, M. D.(1977). *Improved procedures for valuation of the contribution of recreation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Water Resources Center Report 128, Urbana-Champaign, Ill: University of Illinois.
- Hanemann, W. M.(1994). Valuing the environment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4), 19-43.
- Hanley, N., & Spash, C. L.(1993).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Environment*. London: Edward Elgar Publishing.
- Hausman, J. A.(1993). *Contingent Valuation: A Critical Assessment*, Amsterdam: North Holland Press.
- Lee, C.-K.(1997). Valuation of nature-based tourism resources using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urism Management*, 18(8), 587-591.
- Leon, C. J.(1996). Double bound survival values for preserving the landscape of national park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46(2), 103-118.
- Melville, S., & Riaan, R.(2011). The significance of festivals to regional economies: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Grahamstown National Arts Festival in South Africa. *Tourism Economics*, 17(3), 603-624.
- Pearse, P. H.(1968). A new approach to the evaluation of non-priced recreational resources. *Land Economics*, 44(1), 87-99.
- Rumi, S. M.(1999). *The Economic Value of the Environment: Case from South Asia-Application of the Travel Cost Method (TCM): A Case Study of Environmental Valuation of Dhaka Zoological Garden*. IUCN US, 1-18.
- Walsh, R. G., Loomis, J. B., & Gillman, R. A.(1984). Valuing option, existence and bequest demands for wilderness. *Land Economics*, 60(1), 14-29.